

투데이 칼럼

화목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대설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며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는 것이 체감되는 11월, 농촌과 산림 인접지역은 추위진 날씨에 밤낮으로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화목보일러로 난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화목보일러는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소재실
남원소방서장

화목보일러는 농촌·산간지역에서 나무라는 저렴한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주택에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블링'을 하기 위해 소형으로 제작되어 보급되기도 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화목보일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화재는 최근 5년간(18년~22년) 149건이 발생했으며 주된 화재원인은 '부주의'로 전체의 81.2%를 차지했다.

화목보일러 굴뚝에서 날아간 재가 강풍에 날려 산불로 돌변하기도 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화목보일러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모든 것을 앗아가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화재없이 안전하게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보일러 주변에 나무나 기름 등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을 3m이상 떼어놓고 인근에 소

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한 뚜껑을 열고 사용하면 불티가 날리기 때문에 반드시 밀폐된 상태로 사용해야 한다.

이때 연료는 화목만 사용해야 하며 각종, 파렛트, 거푸집같이 방부처리된 폐목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불이 꺼지면 다시 살리기 어려워 장작을 한꺼번에 많이 넣는 경우가 있는데 나무가 보일러 내부에 가득 차면 온도가 200도를 넘어 과열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적정량을 사용해야 하고 연통청소도 3개월에 한 번씩 실시해 찌꺼기가 연기배출을 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남원소방서는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의 화재발생·피해저감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산림 인접 120가구를 대상으로 동과여부를 확인하고 헤드교체를 시행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했다.

또한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패뉴얼을 배부해 자율점검을 독려하고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SNS홍보와 캠페인을 이용해 화목보일러 사용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경제적이지만 화재위험성이 높은 화목보일러, 득과 실을 따져서 가정 환경에 적절한 용량을 선택하고 무엇보다 화재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시길 바란다.

사설

전북 도내 노인회비 징수 관행

대한노인회가 노인회비 징수 관행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회비가 회장 월급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에 나선 것이다. 전북 도내에서는 9개 노인회 시군지회가 경로당에 지원된 보조금을 노인회비로 거둬왔다.

제대로 된 증빙도 없이 사용해 지자체의 감사와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어느 지회는 경로당 보조금을 떼어 노인회장 월급으로 지급했다. 보조금 집행과 회계 관리 등 12가지 문제가 지적돼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월 2백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매월 통장에 입금해 논란이 컸다. 회비를 걷을 수는 있지만, 정부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쓸 수 없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년 동안 7천만 원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엉뚱한 서류를 증빙으로 첨부하거나 같은 사진을 여러 차례 첨부한 곳도 있다. 빵과 간식 등 구매에 1억 원 넘는 예산을 쓰면서 해

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특정 업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다른 시군도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노인회비로 내면 안 된다는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경로당 이용자가 자부담 납부할 것을 명시했다.

경로당은 지자체가 설치와 운영에 관여하는 법정 시설로,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은 의무가 아닌데도 그간 대한노인회는 정관을 근거로 독점적으로 경로당을 관리·운영하고 회비 징수까지 해왔다.

전국의 경로당은 6천여 곳, 매년 100억 가까운 회비가 징수되고 있다. 최근 세금으로 임원 활동비를 지급하려는 법안까지 제출되면서 '임원만을 위한 노인회' 아니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법정 시설인 경로당을 노인회가 독점하면서 생긴 편법적 관행들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늘어나는 여성 공무원

여성 공무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별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공공기관, 국립대 교수, 군인, 경찰 등 총 12개 분야 소관 부처가 자율적으로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군인 간부 중 여성 비율은 2021년 8.2%에서 2027년까지 15.3%로 높인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여군 역할을 개발하고 군 내 양성 평등을 위한 인사관리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여군이 남군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투 부대 내 여군 보직을 확대하고 영광급 여군이 정책 부서에 보직되는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일반 경찰 중 여성은 2021년 기준으로 14.2%다. 이를 2027년까지 17%로 높인다. 관리직

은 같은 기간 6.5%에서 8%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2026년부터 신임 경찰관을 선발할 때 남녀 구분을 두지 않고 통합 선발한다. 남녀 수험생 모두에게 체력검사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립대 교수 중 여성 비율은 같은 기간 18.9%에서 22.9%로 높인다.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2021년 10%였으나, 2027년에는 13.5%를 달성한다. 정부 부처 과장급(4급 이상)은 같은 기간 24.4%에서 30%로 높인다. 지자체 과장급(5급 이상)은 24.3%에서 32.2%로 확대한다.

공무원의 경우 장기적으로 고위공무원 비율을 37%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관리자급 여성 비율을 우선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여성 교원 채용을 확대하고, 출산·육아 등으로 연구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적극 운영하기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겨울왕국 '아렌델'에서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들



20일(현지시간) 홍콩 디즈니랜드 리조트에서 겨울왕국 세상 '아렌델'이 개장해 방문객들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원트디즈니가 인기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10주년을 맞아 홍콩 디즈니랜드에 겨울왕국 세상 '아렌델'을 재현했다.

'대선 승리' 누이와 함께 환호하는 밀레이 당선인



하비에르 밀레이(왼쪽)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선거 본부에서 승리 연설 도중 누이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아르헨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자유진흥연합의 밀레이 후보가 약 66%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